

# SK-GS건설, 타이 BTX 공동수주

## ATC 발주 공사 6억6000만달러에 ... P-X 62만톤에 벤젠 36만톤

SK건설과 GS건설은 타이 국영 석유기업 산하 ATC(The Aromatics Thailand Public)가 발주한 6억6000만달러의 BTX 플랜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6일 발표했다.

SK건설 손관호 사장과 GS건설 김갑렬 사장은 워커히호텔에서 발주처인 ATC의 Permsak 사장과 함께 계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해외에서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공동 수주한 것은 이례적으로 저가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주는 시공사가 설계와 구매,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이며 양사의 공사 지분은 SK건설이 64%, GS건설이 36%이다.

플랜트 공사는 타이의 방콕 동남쪽 250km에 위치한 Map Ta Phut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SK건설은 촉매 개질시설과 저장탱크시설, 기타 지원시설 공사를 맡고 GS건설은 BTX 플랜트 건설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200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사가 끝나면 P-X(Para-Xylene) 62만톤, 벤젠(Benzene) 36만톤, 톨루엔(Toluene) 6만톤 등 104만톤의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게 된다.

SK건설은 타이공사 수주에 이어 ATC와 3000만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며 ATC가 추후 발주할 예정인 1억5000만달러 상당의 추가 설비공사 수주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건설 손관호 사장은 “타이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대형 공사를 수주하게 됐으며, 특히 계약에 타이 석유화학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TC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공사수주 전망도 밝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07>